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오늘 돌성경 제막식

오전8시 교회 정문에서

지난 25일(목)부터 기초 작업을 하고 오늘 오전 8시에 제막식을 갖은 돌성경과 표지 석은 지난 3개월 동안 경기도 포천군 소재 두리석재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다. 서울교회 창립 50일전 기도회를 갖고 교회설립을 선언한 서울교회는 기도와 말씀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돌성경위에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새겨 넣었다.

제막식은 오늘 오전 8시 표지석과 함께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당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이목사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와 성소결에 있는 상수리 나무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저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나니 그러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수24:26-27)”라는 말씀을 읽고 이 돌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과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물로 삼자고 설교했다.

제12학기 서울 성경대학

교육일정 발표

9월2일(월)부터 11월10일(주)까지 10주간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배우고 확신하는 말씀 신앙을 확립하고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양성키 위해 열린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와 이웃 주민을 위하여 개방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12학기 서울 성경대학이 교육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 교육기간은 9월2일(월)부터 11월10일(주)까지 10주간이며 서울 성경대학 입학은 희망을 하는 모든 이들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각 강좌별 10,000 원으로 동일하다. 자세한 개설강좌와 시간, 담당 교역자 그리고 강의실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제5차 아시아 로잔 대회 준비모임

(The 5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

7월 29일(월)오전7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교회에서 개최되는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의 성공을 위한 준비모임이 내일 29일 오전 7시 비전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는 'Partnership in the Gospel'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교회와 로잔 운동을 위해 젊은 미래 지도자를 발굴 격려하고 오늘날 아시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도전하며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일 행사는 1부 경건회로 장신대 이광순 교수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며 2부는 설명회로 ALCOE V의 대회장인 조종남 목사의 로잔 국제 위원회 보고와 ALCOE V준비위원장인 이종윤 목사의 ALCOE V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강좌	요일·시간	담당	강의실	
성경 괴담	잠 언	월, 오전 10:00	이태훈전도사	602호
	사무엘상·하	화, 오전 6:00	이용식 목사	602호
	데살로니가서	화, 오후 7:30	오정식 목사	602호
	마태복음	목, 오전 6:00	한상은 목사	602호
전도학교	목, 오전 10:00	이규정 목사	600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10~4:30	이성득 목사	603호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10~4:30	이용식 목사	502호	
평신도 신앙강좌반	주일, 오후 1:00~2:00	김영한 목사·이만열 전도사	101호·601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	윤영국 목사	502호	
경로대학	목, 오전 10:00	이용식 목사	101호	
음악교실	목, 오후 7:30	허의철 집사·이연숙 권사	502호	

흑인영가단 공연

8월18일 찬양예배시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기치로 흑인인권을 찾았자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는 흑인 영가단(African-American Spiritual Choir)이 8월18일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공연 한다. 흑인영가단은 지난 1999년 C.B.S의 초청으로 세종문화회관 및 지방 C.B.S 방송국, 경북대 및 강릉대 등에서 연인원 25,000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한 바 있다.

훌륭한 공연을 우리교회에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우리교회에서 갖는 이 귀한 시간을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금주의 성경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인수하여 보내니라(행 13:2-3)
While they were worship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 them." So after they had fasted and prayed,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send them off.

이시아서 강해

나의 종들과 너희

(이사야 65장 13 - 16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들에게 내리실 벌의 종류를 말합니다. 본문은 경건한 자와 사악한 자, 믿는 유대인과 불신자가 받을 생과 사, 선과 악, 축복과 저주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1. 바벨론에서 해방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때 회개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들고 와 조국에 돌아와서도 우상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불신앙에 빠졌 습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푸리고 죽임을 당 하라니 이는 내가 볼라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1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살할 양과 같이 칼에 붙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피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어서 다 그 앞에 구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법대로 준비되고, 명령을 따라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해당되는 자들은 칼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까지 할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강력한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강박하게 행하고서도 형통케 된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있고 갖에게 상을 배풀며 므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11절).

칼에 붙임을 당하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옛적부터 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인간이 사람이나 혹은 다른 것에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12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겠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습니다. 불신앙은 후기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2. 회개하고 믿음에 이른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13-16절).

(1)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뻐합니다. 그들은 불신앙 안에서 강박해지고 멸망케 될 이웃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여 비참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다는 것(13절)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행복감을



이종운 목사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은혜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남은 자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입니다.

보고 슬픔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미워하며 힐뜩였습니다. 특히 자기들의 잘못된 안이했다면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슬픔이 더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면서 탄식하고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멸망할 자들의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만족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처럼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마실 것이 충분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잔치에 환대를 받을 것이고 그의 집은 선한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행복은 그들의 영원한 향연이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하늘나라를 체험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성취했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므로 거기서 행복과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나 미래에 채워질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반면 마음을 세상에 두고 거기서 행복을 구하는 자는 굶주리고 갈 하며 항상 공허감을 느껴 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은 과식하면 물리게 되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항상 풍성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의 기쁨을 찬송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뻐해야 할 항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슬픔이 될 일은 전혀 없고 슬픔을 완화시키고도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슬픔이 있을 수 있으나 미래에 주어질 기쁨을 생각하면 현재의 슬픔은 턱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살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들에게는 기쁜 마음이 생기며, 기쁨은 그들의 힘이 됩니다. 성도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로 세뽀리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빼앗겼으나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주님을 버린 자들은 기쁨으로부터 차단됩니다. 웃음이 통곡이 되고, 기쁨이 고민으로 변하여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눅 16:25).

(2) 명예와 평판에 있어서의 차이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춌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15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나 악인의 이름은 씌게 되느니라"(잠 10:7).

우상숭배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의 이름은 저주와 치욕과 불명예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악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중국에 도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악한 자를 가리켜 도척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아버지를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서양 속담에 '너는 유대인처럼 잔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불신자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게 남게된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의 이름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16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과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청원하고 공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곧 아멘의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 약속의 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멘이시고 신실하신 증거이십니다(계 13:4). 그리고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됩니다(고후 1:20).

"이는 이전 환난이 있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16절).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를 통해 서약하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총을 구하는 이들은 이전의 환난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참담한 추억은 현재의 평안으로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 고통은 지나갔고 귀환의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신령한 축복은 옛 고통을 잊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을 구할 때 진리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갖이나 므니같은 우상에게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면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여 전 생애 동안 여호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환난을 잊고 신진 신지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언약을 진실되게 지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진실 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호와의 종으로 스스로 만족하여 행복감을 갖게 됩니다. 새 이름, 곧 그리스도인 안에서 복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위한 바른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성희 집사(유아부 교사)

아직 이른 시간인데 벌써 교회당에 도착해 기도도 준비하는 부모님들이 눈에 띄었다. 그분들을 보며 "유아들의 믿음은 곧 부모님의 믿음과 직결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주님앞에 무릎 꿇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나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1부 순서는 찬양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창조주 ~ ♪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 ♪ 비록 어려서 울동이 잘 안되는 유아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만큼은 초롱 초롱 빛나고 있었다. 앞자리에 앉아 오~ 음음~ 하는 아이들, 그아이들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내게는 때묻지 않은 주님이 기뻐 받으실 찬양소리로 들렸고 오히려 내겐 세상의 그어떤 찬양보다 은혜스러웠다.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려 애쓰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의 표현은 아직 미숙하나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심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세속적인 것이 아이를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주심에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옥정하 (유치부교사)

7월 22일 장마비가 오는 가운데서 유치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다. 아이들이 참여하고 같이 즐기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같이 즐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나가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지를 직접 깨닫게 해주었다. 평소 때는 설교말씀이 지겨워 뒤척거리던 아이들도 이번 성경학교만큼은 다들 열심히 참여하여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였다.

성경학교의 하이라이트는 과일로 꾸민 바다와 배였다.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감탄하였다. 모든 정해진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모여 떡볶이와 과일을 먹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사고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었다. 평소보다 더욱 많은 유치부 학생들이 참여해 주었고 보다 열심히 해주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겨울성경학교를 기대하겠다.



김기남 (유년부3반)

여름성경학교에 오니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그러나 첫째날, 들



째날이 되니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오히려 더 즐겁고 신이 나게 되었다. 그림자극, 체육대회, 분반공부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정말노력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오서진 (유년부3반)

... 제일 아쉬운 것은 전도카드를 만들었는데 비가 와서 전도를 못한것이었고, 제일 재미있는 것은 분반공부시간이었다. 그리고 조장으로서 조장다운 노릇과 친구



들을 좀더 잘돌봐야 하겠다.

전성우(유년부3학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나는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갑자기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아버지를 전도하고있다.

또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이 짧은 장애인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받고 운전면허증까지 따고 장애 운전 대회에서 메달받는 영화를 보았다. 하겠다는 노력이 결국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미리아(초등부)

수련회는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중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기쁨이 넘쳐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비록 보잘것없이 없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하나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반드시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 확신을 갖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생명을 느껴볼 수 있었던 '코너학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1박2일 동안 저희들을 가르쳐주시고 기도해주셨던 선생님들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에서 제가 느꼈던 것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선영집사(사랑부)

해마다 여름이면 어린이집 4~5일씩하던 여름성경학교가 생각납니다. 선생님들보다 먼저와서 예쁜명찰을 달고 개회예배를 기다리던 성경학교... 그때 그시절의 그리며 사랑부 성경학교를 소개 합니다

하루뿐인 날 이기에 더욱 알찬 내용의 성경학교였고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개회예배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감사하는 찬양울동, 생명살림이, 생명죽임을 알게한 OHP극. 나와 친구에게 생명을 체험하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을 잊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이 풍선에 공기를 넣어보고 터뜨려 보아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을 알게 하는 생명체험 현장과 친구들이 되기 위한 세족식은 선생님의 발을 씻기시는 목사님의 손길과 반 친구들의 발을 씻기시는 선생님의 손길에는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손길이며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 하기로 결단 하며 소원하는 눈망울에 이슬을 남기며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2002년 여름성경학교를 평생 잊지 않고 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사랑부 친구들의 삶이 되길 바라며 신호순 지체 장애우글을 올립니다

우리들의 희망

신호순 (사랑부)

고운 노래를 하고 싶어요
탁한 소리라고
고함 친다고 놀리지 마세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멋진 춤을 추고 싶어요
장단이 틀리다고
어색한 몸놀림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마구 뛰고 달리고 싶어요
빠르다고 뒤통거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꿈은 많다고 놀리지 마세요
진짜 우리들의 희망이에요



신혼가정부 여름수련회 후기 한 여름 밤의 꿈

문동진(신혼가정부)

한여름 밤의 꿈이란 말이 있다. 1박2일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밤이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로 다가왔기에 떠오른 말이다. 올해 7월 중순 하룻밤을 양평에서 신혼가정부가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신혼가정부 10가정이 참여한 조촐한 수련회였지만 아이들이 8명이나 되어 잠시도 조용한 적이 없는 시끌시끌한 시간들이었다.

작년에 결혼을 한 이후 신혼가정부에 출석하였고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아내(김은정)와 아이(문영훈)와 함께 신혼가정부 여름수련회에 참석하였다. 1박2일의 짧은 시간이어서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고 색다른 환경에서 부부가 서로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떠났다.

첫째날 저녁과 둘째날 오후에 이어진 성경공부시간은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공부하면서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남편(아내)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애써 외면해 왔던 아내(남편)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였다.

특히 우리의 여름밤을 고민케 했던 프로그램은 남편(아내)의 장점을 20가지 써보라는 것이었다.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작성하여야 했기에 10가지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상당한 시간동안 기억을 더듬으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내(남편)의 장점을 결국에는 써 내었다. 그리고 이를 모두의 앞에서 민망함을 무릅쓰고 발표하였다. 잘못하면 자랑으로 비칠 우려도 있었기에 때로는 조심스럽게 발표하는 모습들이 착하게 느껴졌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입장이었던 나는 각자 서로에게서 장점을 부지런히 찾아내고 이 장점을 크게 확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중한 사람을 배우자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나도 아내의 장점 20가지를 적어보았다. 하나하나 써 내려갈 때마다 '그렇지 이 사람에게 이런 장점이 있었지, 이런 면이 참으로 나를 감동시켰지' 라는 것들을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재발견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또 한번 그 장점은 우리 아내의 장점이기도 한데...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20가지, 30가지도 적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나중에는 20가지, 30가지도 적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더욱 소중한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한 '과거'를 기억나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났던 날들, 그 사랑스러운 표정들을 떠올리게 하였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나 나를 감동시켰던 사람과 결혼하게 하시는 큰 축복을 주셨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귀여운 아이와 함께 나를 있게 하셨다. 그분의 귀한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축복하심 이외에 다른 것으로 오늘

의 나를 설명할 수 없다.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한 이후는 정말로 다른 시기이다. 이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요 협력이며 동행이고 서로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끊임없는 진행형인 우리의 결혼관계가 신혼가정부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뿌리가 두터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수련회는 나무에서 나이가 하나 더 생겼듯 우리에게도 더 두터워지고 든든해진 관계로 서로를 좀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바라보게 한 기회였다.

그 한여름 밤을 다시 한번 '기억' 하면서 내내에도 또 한번의 든든한 뿌리내림이 있기를 소망하며 내일의 출근을 위해 잠을 청한다.



2002 농어촌100교회후원자별 분포

등정

- 이종윤목사는 29일(월) 한국로잔 위원회를 소집하고 ALCOE V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 오경수 장로(14교구장,계정위원장)는 본당2층에 액정 평면T.V8대를 헌납했다.
- 이영주 집사·최양혜권사는 돌성경과 표지석을 헌납했다.
- 여름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해 많은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드립니다.

☞ 금주의 식사제공 : 이갑진 장로 · 박우주 집사 (범사에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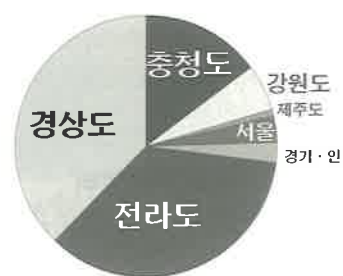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금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농어촌전도대가 파송되는 목양교회는...

1994년도 부터 시작된 농어촌 100교회 지원은 우리 교회가 설립 3주년을 기념해 민족복음화를 비전을 갖고 시작한 것이다. 교회 지원은 해가 갈수록 그 수를 더해갔으며 지원을 작성한 개인이나 부서가 모두 성실히 담당하여 농어촌 교회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농어촌전도대는 이 가운데서 선발되며 우리교회 전도대 규모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도및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교회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충청남도 예산군 봉사면 효교 2리에 소개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목양교회로 파송한다.



농어촌100교회 지역별 분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세정 (고등부교사)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요즈음이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공부, 성적, 대학진학 등이 최우선이 되어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오로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책과 싸워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는 것, 또한 이웃을 거저없이 사랑하며 모든 인간들이 복되게 살리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복 받은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청소년들에게 건전, 대화, 자연, 건강을 주제로 교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무덤과 지루한 여름 귀퉁의 중·고생 자녀들을 치악산 깊은 계곡의 가나안 농군학교 여름 수련회에 보내주셔서 자연의 넉넉한 품속에서 안식하며 이곳에서의 참된 쉼 속에서 삶의 올바른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생각하며 내일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몽골 단기선교팀, 농촌 전도팀의 승리와 아시아 로잔대회 성공을 위하여
2.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중에 준비되고 시행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